

민주 '통합-단독전대' 충돌...野통합 난관

중앙위 결론 못내 27일께 재소집 검토

“손-박 한발씩 양보” 절충안 제기 주목

민주당이 통합 추진 승인을 위해 지난 23일 개최한 중앙위원회의에서 ‘통합전대파’와 ‘단독전대파’가 충돌하면서 향후 야권 통합 행로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음달 17일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열고 통합을 의결한 뒤, 내년 1월 초 순 통합을 이루자는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앙위원회의에서 6시간 넘게 격론이 펼쳐졌으나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남에 따라 오는 27일께 중앙위를 다시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헌·당규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전대를 열어 지도부를 뽑고 나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민주당 단독 전대 개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당내의 의견 수렴과 당헌·당규 검토 등 별다른 전략 없이 통합을 밀어붙였던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통합 논의의 분수령

이었던 민주당 중앙위원회의에서 길이 막히면서 야권 통합의 동력이 차츰 약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에서 통합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오는 25일 열리는 2차 ‘통합 추진 연석회의’에서 통합 전당대회 절차와 방식이 결정될지도 불확실하게 됐다.

혁신과 통합, 진보통합시민회의, 창조한국당과 국민참여당 대통합 추진세력 등 민주당 외부의 ‘통합 추진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통합 결의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크게 실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저지 실패에 이어 통합 작업마저 순탄치 않아 리더십 위기를 겪는 손대표는 이날 예정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 마련 및 향후 행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외부에서는 통합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음달 17일 민주당 단독 전당대회를 열고 통합을 결의한 뒤, 통합의 수임권이 부여된 통합위원회나 비상대책위를 구성, 내년 1월 초순 신선험합 방식을 통한 통합을



‘엇갈린 표정’ 지난 23일 밤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나자 손학규 대표가 박지원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손대표의 손을 잡았다. 이날 중앙위 회의에서는 야권통합에 대해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연습

이투자는 것이다.

당헌·당규와 시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다음달 17일 통합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실질적으로 통합을 결의한다는 점에서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절충안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

표가 한 발씩 물러서서 통합을 원만하게 이루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 논의의 내부에는 내년 1~2월에 창당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

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절충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 시대적 요구 당론 결집시켜야” “날치기 막아 지역예산 꼭 챙기겠다”

최인기 지역 국회의원 모임 대표



“통합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 밖의 통합 세력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통합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인기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통합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先)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창하는 세력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길을 여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 의원은 이어 “민주당 당헌·당규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통합 논의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혁신과 통합 등 당 밖의 통합 세력도 가슴을 열고

진 안목으로 민주당과 함께 통합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진영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 당 밖의 통합 세력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예결특위 야당 간사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소위의 예산 심사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4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 책임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 등 날치기 불신을 해소하는 행위가 전제돼야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만큼은 합의처리 돼야 하는데, 또 날치기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야간) 합의처리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예산안 심사가 연

제 재개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현재 15개 상임위원회에 50여 개 기관이 있는데, 이중 3개 상임위원회 15개 기관의 심사(15%)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3년 연속 날치기를 당하다 보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챙기기 못한 점이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중 차세대 다목적 가속기 설치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F1 대회 예산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안철수 신당’ 군불때기

멘토 법륜스님 “12월까지 태동해야”

‘안철수 신당’ 군불 때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안 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스님과 윤여준 환경부 전 장관이 신당의 필요성을 입을 모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법륜스님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 여야가 싸울 것이라면 새로운 정당이라도 나와야 한다”며 신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신당을 할 경우) 늦다고 하면 내년 2월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12월에 그런 것들이 태동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뒤, 안 원장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아직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창당을 완료하고 안 원장의 참여도 요구

하겠다는 의지다.

윤 전 환경부 장관도 이날 MBN 뉴스에 출연, “지금 여야 또는 보수·진보로 나뉘는데 두 세력이 다 이 나라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안 원장이 창당할 경우 그 영향력은 폭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안철수 신당’ 출범 여부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창당시 정치권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중심의 이합집산으로 정치권이 혼돈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세일 신당’ 준비 박차

“내달 하순 창당준비위 ... 내년 1~2월 창당”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 이사장은 24일 “내달 중하순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2월에 창당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창당설명을 한다”며 “지역주민과 지도자들이 참

가하는 설명회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신당 창당 준비를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고 “법륜스님도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만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통합하는 ‘대(大)중도신당’을 지

향하는 박 이사장 측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안 원장을 영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이사장은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인 경향신문에 24일자로 ‘대한민국의 전혀 새로운 정당이 출범합니다’라는 카피의 광고도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박 이사장이 설립을 주도한 선진통일연합(회원수 1만여명)도 이날 대표자 회의를 갖고 박 이사장이 추진하는 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장병완, 내일 광주서 출판기념회

이개호, 담양서 출판기념회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26일 오후 2시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장병완의 나라살림이야기’ 출판기념회를 연다.

장 의원은 이 책에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 장관에 오르기가까지의 30여 년의 예산 인생이야기와 청년시절, 국회의원 당선 과정 등을 담담히 적었다.

특히 장 의원은 5·18 기념재단 지원 사업비와 얽힌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을 비롯, 반기문 UN사무총장 만들기 프로젝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분원 탄생 비화, 광주 새야구장 국비확보 배경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기존의 형식을 탈피한 ‘북 토크’ 형식으로 진행돼 장 의원과 참여자들 사이에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출판기념회에 이어 다음달 7일에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2차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개호 전남도 전 행정부지사가 26일 오후 1시30분 담양문화회관에서 자전적 에세이 ‘나는 일꾼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0여년 간 공직 외길을 걸어오며 전남발전의 이끈자로서 소회를 적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담양·곡성·구례 지역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예정이다.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독자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인간 이개호’의 삶과 신념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퇴임한 이 전 지사는 민주당에 입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중앙위원에 임명됐으며, 내년 총선에서 담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람을 찾습니다

1982년(당시 서구 효덕동) 현재 남구 진월동 동사무소 부근에 거주했던 안영숙(60세 초반)을 찾습니다.

【 긴급 연락사항이 있으신지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

062)261-1385

50년 전통 · 대를 잇는 한의원

잇몸병 한약 2첩

붓고 시리고 애리고 피날때

북경당 한의원

대인시장 한미소평 맞은편

한의학 박사 **박 상 준**

전 화 **227~7575**

이 이 齒 ~ 치료 치료

대한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5-증-9092호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시금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KBS/세~80%+α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80% (60%)

금리: 연 3.93%~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금금융 (대부 제 4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연 6%정도 (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10년 (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 (등금미납) 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선순위 대출시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 (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

KBC 호남최대규모 건축전시회

제6회 건축박람회

2011년 11월 24일~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각종 내·외장재 및 친환경 제품 편백등을 광남 종합 목재 건재상가(주)가 출품하였습니다.

참가품목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문주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